



인화여고 영어동아리 "Inhwa Herald(인화헤럴드)"

넘치는 에너지, 순수한 열정만으로...

Q : Is there any special reasons for your keen interest in English?

I think speaking English is the essential ability to live in a global world. Also the Asian Games will be held in Incheon in 2014. I'm trying to volunteer for helping foreigners who come to Incheon during the Asian Games. It is so important to adapt to international society.

질문 :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로벌시대를 살면서 영어말하기는 꼭 필요한 능력이란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구요. 전 아시안게임 때 인천으로 올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에 적응하기란 매우 중요한 것이죠.

2009.2.23자 The Inhwa Herald(인화헤럴드) 퇴임한 김흥길 교장과의 인터뷰 기사 중 예서.



시청각실에 모인 동아리 학생들. 환한 웃음만큼이나 신선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인사말에 남들과 다른 에너지와 활기가 느껴졌다.

최윤경(32.영어) 교사의 인사말에 '열정'과 '에너지'였다.

하지만 시청각실에는 꼭 최 교사의 '열정'을 닮은, 아니 더 활기찬 제자들이 인터뷰를 기다리며 기대감을 가득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달 29일 동아리탐방 위해 찾았던 "Inhwa Herald(인화헤럴드)" 멤버들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밝고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

영어담당 최윤경(32) 교사의 지도 아래 2학년 8명, 1학년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영어동아리 인화헤럴드의 동아리의 가입 기준은 간단하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닌 영어에 진솔한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녀해 실험적으로 만든 영자신문(Inhwa Herald)에 참여했던 인원이 최윤경 교사와 의기투합(?)해서 동아리로 거듭났다.

최 교사는 처음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고, 이원우 교감은 흔쾌히 'OK' 대답을 건넸다.

동아리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여 학교 내 원어인 강사와 생활영어 등을 배우고 있다. 특히, 원어인 강사

(Brad)는 학생들에게 적잖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학생들은 다소 어색한 인터뷰 시간에 말문이 트이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 듯이 자유롭게 말했다.

1학년 김빛나 학생은 "가끔 외국인과의 대화를 알아듣고 말로 표현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동아리 활동의 장점을 거론했다. 또한, 2학년 장정미 학생은 일어린 교사의 친분(?)을 과시하며 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인터뷰 중 '1박2일 워크샵 떠나기' '영어 좌담회 개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 원어인 한국어 가르치기', '영어자막 있는 영화 감상하기' 등의 일들이 앞으로 계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2학년 백수지 학생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조그만 공간이라도 동아리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현재 최 교사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강의 'EDU I' 영어강의도 맡고 있으며, 특유의 활동적 에너지가 학생들과 어울려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강의경험과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왕이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랐고 좋은 추억으로 남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즐거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어'. 하지만 이들의 열정을 보면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것으로 보였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회원명부

지도교사: 최윤경(담당과목 영어)

- 백수지(2-1), 정다솜(2-3), 공세린(2-1), 맹정현(2-2), 김보경(2-2), 유혜란(2-2), 정정미(2-5), 정준영(2-7)
- 이주희(1-1) 정아름(1-4) 강나연(1-4) 정은애(1-7) 차유정(1-7) 문정인(1-7) 김빛나(1-7) 방현정(1-7) 황인경(1-7) 고민지(1-8) 김민경(1-9) 이연경(1-9)

"우리 사업해도 될까요?"

광주 전문계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인순일)은 지난 5일 광주시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09 광주전문계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시교육청이 전문계고교생의 창업마인드 확산과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으며, 광주지역 전문계고 창업동아리 회원 75명이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 개최해 창업 특강, 입상자 창업 지원 등 학생들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제품 생산, 마케팅 전략 등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창업 아이템 중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심사는 회사 상호와 CI 선정 이유, 창업아이템 개발 전략 및 창의성, 마케팅 전략,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고, 2차 심사는 특허청 관계자, 대학 교수, 기업 CEO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창업의지, 기술, 사업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했다.

지난달 1차 심사 결과 우수 아이템에 선정된 12명의 참가 학생이,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했으며, 1, 2차 심사 결과 광주공고(교장 주규봉) 김도현(컴퓨터응용설계과 1학년)학생의 'Multi-USB' 아이템이 대상을 전남공고(교장 김용희) 김현우(기계과 1학년)학생의 '시온링크를 이용한 온도 따라 색상이 변하는 벽지' 아이템과 광주여상고(교장 최경) 윤문희(인터넷비즈니스과 3학년) 학생의 '알기 도우미 펜', 전남공고 박용서(건설정보과 1학년)학생의 '절수용 변기' 아이템이 금상에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Multi-USB' 아이템은 누구나 한 개쯤 가지고 있는 USB메모리가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USB끼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으로 기존 USB의 불편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장고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냉장고 폐열을 활용한 난방장치', 신발 밑창에 IC칩과 송신장치를 내장하여 걸음 횟수 등 정보를 제공하는 '다이어트 슈즈' 등 학생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착안한 내용들로 사업성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출품되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광주지식재산센터(소장 김일)의 지원으로 아이템 선행기술조사, 관련 기업체 직장 체험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창업 지원도 받게 된다. [한승훈 기자 shwan@eduyonhap.com](mailto:shwan@eduyonhap.com)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형국출판사 간

- 한국 사회복지사 1급 시험
 (www.krci.go.kr) 출제율 100% 반영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100% 완벽 100%

책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8년 3월 이전)을 빠짐없이 담아서 반영하였다.
3. 열거형으로 1장까지 복선화 하여 30장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4. 강좌별 확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업계 전문가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을 별도로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원격평생교육원 (eStudy.co.kr)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형국출판사 TEL : (062)653-1998